

■ 보고와서, 다녀와서 ■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찾아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체코에서 만난 흔적들

신 동 규

20세기의 문화는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19세기 국민국가의 공교육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역사는 기록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시민의식과 국민정체성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절대왕정의 권좌를 차지했던 주인공들이 모은 수집품들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결과인 ‘전리품’들이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건물들에 전시되면서 박물관은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와 영광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소통의 공간으로 대중과 만나게 되었다. 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급휴가의 제도화가 노동자들에게 여가활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는 대중이 과거를 만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통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20세기는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저장된 기억과 기록된 역사가 교차하는 시기였다.

교실과 교과서 밖의 공간장치를 통해서도 - 어쩌면 더욱 - 효율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그 흔적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공적공간에 자리 잡은 기억과 실재를 지칭하는 사건 그 자체로서의 ‘역사’는 시민교육을 위해 서술된 ‘역사’와 함께 대중적 ‘역사 소비 문화’의 한 축을 이루었다. 현재의 사건을 기념하는 방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대중에게 각인 시키는 행위는 집단기억 구성을 통한 시민의식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기억정치를 위해 ‘역사적 사건’을 선별하는 국가와 시민공동체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가 만들어낸 격동의 현장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또 하나의 대중적 역사소비 방식이 되었다. 히틀러의 학살이 만들어낸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과 그 흔적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국가가 역사의 대중적 소비를 위해 만들어낸 공간에서 기억정치가 구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겨울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프랑스, 독일, 폴란드, 체코로 떠난 역사탐방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기 위해 보존된 각국의 수용소와 기념관들이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은 파시즘의 반인륜적 범죄와 유대인 문제가 담고있는 역사의 해석문제가 가지는 복잡함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였다. 서양현대사 수업을 듣던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역사탐방을 통해 그 동안 논문으로 접했던 쟁점들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뜻 깊은 기회였지만, 학살의 현장을 가슴으로 느끼는 학생들과 다르게 머리를 굴리며 연구계획서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 순간에도 수업준비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심각한 ‘직업병’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파리에서는 하나의 유대교 박물관과 두 개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했다. 우선 유대교예술역사박물관은 오래된 유대교의 역사와 예술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다. 이 박물관이 말하려는 바는 유서 깊은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프랑스에서 시민으로서 프랑스라는 국가(Nation)에 융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노력과 유대인을 포섭하려는 프랑스 공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이야기한다. 박물관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유대인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테오도르 헤르츨과 시오니즘을 말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성립으로 전시를 마무리 한다. 즉 이 박물관은 유대인들의 국가 성립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한편 파리의 쇼아 기념관과 파리 근교에 위치한 드랑시(Drancы) 수용소에 위치한 기념관은 히틀러의 범죄와 유대인의 희생을 부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의 희생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의 성립을 합리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었다. 홀로코스트에 직접, 간접적 책임이 있는 프랑스와 파리는 시오니즘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예술역사박물관의 이야기 구성에 쇼아 기념관의 강조점이 들어가면 이 정당성의 논리가 완성되는 모양이다.



유대교예술박물관(파리)
드레퓔스 동상



쇼아 기념관(파리)
희생자 명단을 새긴 벽



드랑시 수용소(파리 근교)

현재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진에 보이는 기차의 화물 칸은 이곳에 수용되었던 유대인들의 대량수송을 표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실재 근처의 기차역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까지 기차로 유대인들을 수송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유대인을 희생자화 한다. 히틀러의 범죄 피해자는 유대인으로 ‘인종화’된다. 그러나 나치즘의 성지였던 뮌헨 근교에 위치한 다하우 수용소와 바이마르 근교의 부헨발트 수용소, 그리고 베를린 근교의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설치된 전시시설은 희생자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로 파시즘에 대항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어야했던 유대인들과 함께 히틀러의 잔혹성을 절대화 하고 있다. 학살을 지휘했던 나치즘의 수도였던 베를린의 기념관과 실제 학살이 일어났던 수용소에 위치한 전시장의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찾아서

차이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전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수많은 관람객을 통제 할 수밖에 없는 다하우 수용소에 보존된 학살의 현장이 살인 장치들을 다소 대상화 시키면서 과거 속의 사실로 보이게 하는데 반해, 황량한 부헨발트 수용소는 아무런 통제 없이 관람객과 각종시설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마치 학살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하우 수용소
(뮌헨 근교)



부헨발트 수용소
(바이마르 근교)



작센하우젠 수용소
(베를린 근교)

그러나 베를린의 유대인 기념관은 파시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의 고통을 상징화 시켜 관람객에게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높은 천장의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빛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어둡고 서늘한 방이나, 듣기 거북한 쇠소리가 울리는 방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고통을 느껴보게 하는 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이 기념관은 600만 명의 희생을 말하고 있다. 바로 유대인들의 희생이다. 희생당한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국가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전경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내부

이에 반해 수용소의 전시시설들은 600만 명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희생자들의 국적별 전시를 하고 있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항독활동으로 체포되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전시를 하고 있는 체코의 테레진 수용소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바로 과시즘의 희생자는 동유럽의 ‘인민’들을 포함해 1100만 명이라는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기억 만들기의 정치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는 서로 다른 집단기억의 필요성 때문일까? 어쨌든 학살의 현장은 인종정치를 말하지만 학살의 현장을 보여주는 방식은 기억정치를 말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비르케나우 수용소
(폴란드)



테레진 수용소
(체코)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